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간계 최강은 누구?



우루과이 '카바니'

프랑스-우루과이 오늘밤 11시 8강전 시작
음바페·그리즈만 vs 수아레스·카바니
내일 새벽 브라질 vs 벨기에 '미리 보는 결승전'

유럽의 자존심 프랑스와 남미의 강자 우루과이가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8강의 문을 연다. 두 팀은 6일 오후 11시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4강 티켓을 놓고 8강전을 치른다. FIFA랭킹 7위 프랑스는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다. 조별리그 C조에서 페루, 덴마크, 호주 등 만만치 않은 팀들을 상대로 2승 1무 조 1위를 기록해 16강에 진출했다. 지난 대회 준우승팀 아르헨티나와 16강 전에선 2골을 몰아넣은 신성 킬리안 음바페(파리생제르맹)의 맹활약에 힘입어 4-3으로 승리했다. 프랑스는 전 포지션에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가 두루 포진했다. 공격라인에 올리비에 지루(첼시), 음바페, 앙투안 그리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 버티고 있고 중원엔 폴 포그바(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앙골로 캉테(첼시) 등 슈퍼스타들이 즐비하다. 크게 다친 선수가 없는 데다 최근 음바페의 물오른 기량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점이 호재다. 블레즈 마튀디(유벤투스)가 경고누적으로 뛸 수 없다는 게 유일한 흠이다. 이에 맞서는 FIFA랭킹 14위 우루과이는 조별리그 A조에서 개최국 러시아, 아프리카의 강호 이집트, 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모두 무실점으로 격파하며 3승을 거뒀다. 16강에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이끄는 포르투갈을 2-1로 꺾었다. 우루과이의 최대 강점은 강한 수비다. 우루과이는 이번 대회 4경기에서 단 1실점에 그쳤다. 강한 수비는 효과적인 카운터어택(역습) 기회를 생산한다. 루이스 수아레스(FC바르셀로나)와 에딘손 카바니(파리생제르맹)가 버티는 투톱은 역습에 최적화돼 있다.

다만 카바니가 포르투갈전에서 왼쪽 종아리를 다쳤다는 게 걸린다. 네이마르(파리생제르맹)가 이끄는 브라질과 '황금세대'를 자랑하는 벨기에는 7일 새벽 3시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맞붙는다. FIFA랭킹 2위 브라질은 조별리그에서 스위스, 세르비아,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2승 1무를 기록해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멕시코와 16강전에서 1골 1어시스트를 기록한 네이마르의 활약에 힘입어 2-0 완승했다. 부상 회복 여파로 조별리그 초반 부진하던 네이마르는 완전히 살아났고, 팀의 조직력도 상승세다. 다만 중원의 핵 카제미루(레알 마드리드)가 경고누적으로 결장한다. 부상으로 멕시코전에서 빠졌던 마르셀루(레알 마드리드)와 다닐루(맨체스터 시티), 더글라스 코스타(유벤투스)도 최근 팀 훈련에 복귀했으나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다. FIFA랭킹 3위 벨기에는 조별리그에서 잉글랜드, 튀니지, 파나마에 모두 승리를 거뒀다. 약체로 폄하되던 일본과 16강전에서 후반 중반까지 0-2로 밀리다 극적으로 3골을 몰아넣어 구사일생했다. 벨기에에는 로멜루 루카쿠(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당 아자르(첼시) 등 우수한 공격자원이 많다. 그러나 이번 대회 기간 내내 유지하고 있는 스리백 수비에서 간혹 불안한 모습이 나왔다. 네이마르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의 측면 돌파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이날 경기의 핵심 포인트다.

/연합뉴스



프랑스 '음바페'

고향 찾은 '캡틴' ... 광주FC도 웃었다

K리그 서울이랜드에 3-0 승...기성용, 모교 금호고에 장학금 전달

'캡틴'의 고향 나들이에 기성용(뉴캐슬)도 광주 FC도 웃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를 누볐던 기성용이 지난 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았다. 금호고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자신이 개인 최대 주주로 있는 광주FC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한 걸음이었다. 경기에 앞서 광주FC U-18팀이자 자신의 모교인 금호고에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기성용은 "광주 FC 많이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면 좋겠다"며 팬들에게 응원을 부탁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성용은 내내 밝은 표정이었다. 경기장을 찾은 친척들과 반갑게 재회한 기성용은 행사 전 마주친 어린이팬들의 사인 요청에도 성심성의껏 대했다. 촉박한 일정 탓에 애가 타는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기성용은 일일이 사인을 해주며 어린이팬들에게 기쁨을 선물했다. 지난 6월 24일 2018 러시아월드컵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종아리 부상을 입으며 우려를 사기도 했지만 기성용은 "땀은 관찮다"며 건강한 모습으로 일정을 소화했다. 가슴 졸이며 준비했던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절반의 성공'으로 끝내고, 뉴캐슬이라는 새로운 동지에서 축구 인생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성용은 흥겨운 모습이었다. "국가대표, 캡틴이 아닌 보통의 축구선수 기성용으로 집중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 기성용은 잠시 고민을 한 뒤 "육아"라고 답을 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기성용은 지난 1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과의 계약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뒤 국가대표 은퇴를 시사했다. 앞서 국가대표에 무게를 두고, 소속팀을 결정해왔던 기성용은 이번에는 개인적인 도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뉴캐슬을 선택했다. '땀바보'로 소문난 그는 국가대표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빠 기성용, 프리미어리거 기성용으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 FC도 기성용과 기본 좋은 기억을 살리며 웃었다. 이번 방문까지 기성용은 모두 3차례 광주월드컵 경기장



한국 축구 대표팀 주장 기성용이 4일 K리그 챌린지 광주 FC와 서울이랜드의 경기가 열린 광주 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축구팬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찾아 고향팬들을 만나고 광주FC의 경기를 관람했다. 그리고 기성용이 관중석을 지킨 세 경기에서 광주FC는 모두 승리를 거뒀다. 기성용이 처음 경기장을 찾은 2015년 5월 30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광주는 1-0 승리를 기록했다. 기성용은 고향팀 광주FC와 자신의 친정팀 FC서울이 맞붙은 지난해 7월 9일에는 광주가 난적 서울을 상대로 3-2로 승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4일 경기 역시 광주의 3-0 대승으로 끝났다. 광주는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전반 15분 터진 나상호의 골을 시작으로 후반 12분 김정환의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 후반 37분 김민규의 쐐기골로 승리를 신고했다. 특히 이적생 김민규는 첫 출전 경기에서 투입 5분 만에 감각적인 골을 넣으면서 승리의 대미를 장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축구협 "신태용 감독도 새 대표팀 감독 후보"

김판곤 선임위원장 "경쟁 통해 선출"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회는 이달 말로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신태용(48)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선임 감독 후보 자격을 주기로 했다. 김판곤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장과 6명의 감독소위원회 위원(최진철, 노상대, 박건하, 정재권, 김영찬, 스티브 프라이스)은 5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신태용 감독에 관한 평가를 진행한 뒤 신 감독과 다른 후보들 가운데 선임 감독을 선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신태용 감독을 한 명의 후보로 생각하고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후보들과 경쟁을 벌일 것"이라며 "인터뷰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감독 선임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신태용 감독은 지난해 7월 4일 성적 부진으로 대표팀 사

령탑 자리에서 물러난 올리 슈틸리케 감독 대신 지휘봉을 잡아 러시아 월드컵까지 대표팀을 지휘했다. 신태용호는 월드컵 최종예선 이란, 우즈베키스탄과 경기에서 모두 0-0으로 비기면서 천신만고 끝에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경기력 논란에 휘말리며 적지 않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거스 허딩턴 전 감독의 부임 희망설까지 잇따르면서 대한축구협회와 신태용 감독을 향한 여론은 싸늘하게 식었다. 신태용호는 그해 겨울 일본에서 열린 EAFF 동아시아컵 우승으로 신뢰를 찾았지만, 평가전에서 선전과 졸전을 반복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월드컵 본선에선 스웨덴과 1차전에서 0-1패, 멕시코와 2차전에서 1-2로 패했고 마지막 독일전에서 2-0으로 승리해 1승 2패, 16강 진출 실패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연합뉴스

차범근, 세계 축구 영웅들과 어깨 나란히

베스트 FIFA 풋볼 어워드 심사위원 선정...마테우스·호나우두·네스타 등과 함께

'한국축구의 전설' 차범근(65)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와 감독 후보를 뽑는다. FIFA는 5일(한국시간) 2018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드'의 각 부문 수상자 후보를 선정할 심사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차범근 전 감독은 올해의 최우수 남자 선수와 남자 감독을 뽑는 13명의 심사위원에 들었다. 심사위원 명단이 화려하다. 로타어 마테우스(독일), 호나우두, 카카(이상 브라질), 프랭크 램퍼드(잉글랜드), 알렉산드로 네스타(이탈리아), 디디에 드로그바(코트디부아르), 윈튼 루퍼(뉴질랜드) 등 각국의 살아있는 축구 영웅들이 이름을 올렸다. 세계적 명장인 파비오 카펠로(이탈리아)와 카를루스 아우베르투 파헤이라(브라질)를 비롯해 엔디 룩스버그(스코틀랜드), 에마누엘 아무니케(나이지리아) 등 지도자들

도 심사위원으로 활동한다. 아시아에서는 차범근 전 감독과 사미 알 자헤르(사우디아라비아), 둘만이 올해의 남자 선수-감독 후보를 추리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올해의 최우수 여자 선수와 여자 감독 후보는 미야 햄(미국), 쑨원(중국) 등 12명의 심사위원이 선정한다. 올해의 가장 멋진 골에 주는 푸스카스상의 후보는 이케르 카시야스(스페인), 미로슬라프 클로제(독일), 다비드 트레제게(프랑스), 마르코 판 바스텐(네덜란드) 등 7명이 후보를 뽑는다. 최고의 골키퍼상은 비토르 바야(포르투갈), 호르헤 캄포스(멕시코), 디에고 포블란(우루과이), 피터 슈마이켈(덴마크) 등 10명의 손에서 후보가 가려진다. 후보는 부문별 10명씩으로 압축해 현지시간 오는 23일 발표한다. /연합뉴스